

김윤태씨, 부산문화재단에 다완 기증



김윤태씨, 부산문화재단에 다완 기증

(부산=연합뉴스)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기장 도봉 김윤태씨(오른쪽)가 3일 부산문화재단 강남주 대표이사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다완 200여점을 기증한 뒤 감사패를 받고 있다. <<부산문화재단 제공.관련기사 참조 >> 2009.3.3.

lyh9502@yna.co.kr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기장 도봉(道峰) 김윤태(金允泰.73)씨가 직접 빚은 다완 200여점을 3일 출범을 앞둔 부산문화재단(이사장 허남식 부산시장)에 기증했다.

김씨는 "부산에 문화재단이 발족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재단이 굳건히 자리잡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평소 아끼던 작품들을 기증했다"고 말했다.

부산문화재단은 앞으로 국제적인 교류행사 때 외국인사들에게 김씨가 기증한 다완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등 재단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5년에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김씨는 부산시 기장군에서 '상주요'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보인 이도다완(井戸茶碗) 등 문헌으로 남아있는 각종 다완 30여종을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가 민간 전문가 주도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펼치기 위해 설립한 부산문화재단은 5일 오전 11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벤처타운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 출범한다.

부산문화재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초대 대표이사에는 강남주 전 부경대 총장이 선임됐다.

부산문화재단의 기금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우선 113억5천만원으로 출범한 뒤 내년부터 2018년

까지 부산시가 매년 40억원 가량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했다.

문화재단은 올해 40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선정.지원, 평가를 비롯해 학예진흥원 업무, 문화예술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부산문화의 정체성확립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lyh9502@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9-03-03 14:48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c) 2005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